

인사·회계부터 ‘사찰 경영’ 모든 것 담다 문화재 보존까지

동국대, 불교 최초 ‘사찰 경영’ 개론서 발간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와 요구도 빠르게 변한다. 사찰 운영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대중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포교는 물론이고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제는 ‘사찰 경영’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은 공동으로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을 2010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연구에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과목으로 개설됐다. 스님들의 관심도 높다. 동국대의 최고위 과정의 경우 현재까지 90명의 스님과 20명의 재가자가 이수했으며, 조계종 연구의 사찰경영 과목은 매회 접수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찰 경영’에 대한 출제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찰 경영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재나 개론서가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사찰경

영 최고위 과정’을 운영해온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경영론(사진)>을 최근 발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찰경영론>은 사찰 운영과 행정을 경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사찰 경영’을 주제로 개론서가 발간된 것은 한국불교계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집필진으로는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김용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홍사성(불교평론) 주한 등 경영·행정·인사 분야부터 언론·포교·코칭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뢰성을 높였다. 편찬 책임은 하춘생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가 맡았다.

개론서의 성격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찰 경영의 정의를 비롯해 △종무행정과 경영관리 △신도관리와 법회운영 △대중교화와 복지활동 △사



경영·포교 전문가 집필
사찰 운영 'A to Z' 까지
사례 제시로 신뢰 더해

“사찰 경영의 도착점은
사찰 본연의 기능 회복”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등 사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부활성화, 국교 보조금 활용 관리, 불교 리더십, 미디어 활용 등 사찰 경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분야들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면 ‘사찰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찰 경영의 정의를 집필한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찰 경영이란 사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종무행정이 종단과 사찰 전체에 걸친 광의의 거시적 개념이라면 사찰 경영은 개별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경영 관리”라고 사찰 경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경영과 회계’를 기술한 이상철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도 “신도 감소와 재정 약화는 한국불교가 신도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긴급한 신호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선불교에 사찰경영을 접목해서 생산적 불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론서 발간에 대해 하춘생 동국대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편찬사에서 “인간 경영의 모범을 보이며 오늘날의 교육과 복지의 이념을 실천해 갔던 역동성이 초기불교 당시의 사찰의 참모습”이라며 “사찰과 경영의 만남, 그 도착지는 전국 사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5월 2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했다.

“화합과 존중의 사회 만들어가자”

전국 사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 의장 성문 스님을 비롯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등 이종종교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요식은 사회에 만연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상생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기룡전자 노조의 유홍희 분회장, 성소수자를 대표해 김조광수 영화감독이 초청돼 부처님 전에 헌화했다.

이날 조계종 총정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뜻을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이라며 “그러니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 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히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식하자”고 말했다.

남북발원문 4년만에 발표 소외계층 초청해 헌화 눈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합과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권위와 분노보다는 아픈 가슴을 보듬고 처진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자애롭고 따뜻한 지도자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

지에서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모두 내 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남북불교도가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 발원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봉축 법요식에서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되는 것은 4년만의 일이다.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발원문에서 남북 불자들은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통으로 삼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제12회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불자대상 수상자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현직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구본일 BTN불교 TV 대표이사에게 그간 불교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상패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황교안 총리 후보 종교편향 우려”

교구본사·불교 시민사회, 임명 반대 ‘한목소리’

“헌법보다 교회법이 우위”
황 후보 저서 기술 논란

본사 주지, 비판 이어가
시민사회 “지명 철회하라”
범종교 연석회의 발족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보여줬던 종교편향 이력에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 정권이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들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승)는 5월 28일 속초 신홍사에서 제3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석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현

정부의 종교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호성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종교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라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의 종교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낙단보 마애불 앞에 설치된 불단, 연등을 철거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스님은 “한국사학자 원공사가 낙단보 마애불의 불단과 연등에 대해 철거 통보한 것은 자체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편협한 종교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신행단체들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회법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이 총리가 될 경우 종교편향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는 5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기본적 인권가치에 어긋난 사고를 갖는 인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이 된 황교안 총리내각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근)도 성명서에서 “정교야합의 표본적 인물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더 이상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고 끊임 없는 국론분열이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교안 내각자의 총리 임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역시 성명을 통해 “그가 배타적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국정철학을 펼쳐갈 것은 분명하다”면서 황 내각자의 과거 종교편향 발언과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박 대통령의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황 총리 후보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범종교계·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도 발족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모임 관계자는 “황 총리 후보 지명이 국민과의 소통과 대통합에 역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체택보고서 거부 등을 청와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신임 이사장·총장 취임식 열린다

6월 11일 중앙당서 개최... 공양미반아 소외계층 전달

동국대가 6월 1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동국대 신임이사장 일민 스님과 신임총장 보광스님 취임식을 개최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황일민 이사장과 동국대학교 제18대 한보광 총장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중앙당에서 취임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은 “화합은 사양하며, 화합대신 공양미를 기증하면 이를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취임축하 난 100여 개를 네팔지 진피해 이재민들기 캠페인 중인 불교대학생회에 전달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생회는 기증받은 난을 본관 로비에 전시하고 판매해 네팔들기 캠페인 수익금과 합쳐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현불상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불삼 단독
입점 상품

품명	규격 (세로/지름)
촛대	사자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大) 28.5cm×34cm
	(中) 21.5cm×29cm
	(中)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大) 26cm×20cm
	(中) 22cm×14cm
	(中)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삼 TEL 02)2004-8216